

# 고학점 취득 ‘바늘구멍’

## B+이상 수강인원 40%이내로 제한 학점표준화 제도 전과목 확대 실시

이번 학기부터 전공과목 성적이 수강인원의 40% 이내에 들지 않으면 B+이상의 학점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96학년도부터 교양과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해 오던 ‘학점표준화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난 95년 학과장 회의를 거쳐 교수연합회의 의견 수

렴 후 교무위원회에서 시행을 결정 한 바 있다.

교과목에 대한 성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동일 교과목에 대한 강좌별 학점분포의 격차를 줄이고 대 학장과 담당교수의 학점평가 관리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이 제도가 이번 학기에 확대 적용된 것 은 각종 교과목의 수강신청에 있어

수업의 질과는 상관없이 학점이 후 한 강좌에 학생들이 편중되었던 점 과 교수의 평가 기준이 다분히 주관 적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확대 실시되 도 성적 평가산출방법에 있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교수가 임의로 평가영역을 선정, 배분율을 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번 제도의 확대 실시에 대해 일 부 학생들은 우리학교의 취업율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 고 있으나 한상홍 서울캠퍼스 수업 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대내외적 으로 우리학교 학점관리의 공정성 을 인식시키게 될 경우 오히려 취업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이 기자〉

## 교육개혁대학 예비계획서 제출 교육환경변화 대응, 경쟁력 배양 목적

우리학교는 지난 20일 '97 교육 개혁추진우수대학 재정지원신청 예 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자생적 경쟁력을 배양 하고자 마련된 계획안은 총 9개 영 역으로 △교육개혁 추진체계 구축 △대학의 특성화 △열린 교육체제 의 제도적 기반 구축 △학생의 소질 과 적성을 살리는 학생선발 △교육 의 수월성 제고 △연구의 수월성 제 고 △대학의 세계화 △대학의 정보 화 △대학 행·재정의 합리성이 그 내용이다.

교육부 1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 원에 의해 평가되는 이번 심사결과 에 따라 60개 대학내에 우리학교가 포함될 경우 7월 하순까지 본 계획 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실시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총 13억을 지원받은

우리학교는 95년 구성된 교육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6개 팀을 결성 하여 이번 계획안의 방향 및 목적에 대해 연구해 왔다.

우리학교가 이번 계획안에서 설 정한 교육개혁의 5가지 방안은 △ 세계속의 특성화대학 구현 △열린 교육체제 운영 △정보화, 세계화의 기반 구축 △문화창달 선도의 인간

교육 △교육재정의 자립기반 확충 이다.

특히 이번 교육개혁안의 중점 사 안인 특성화 대학의 구현을 위해 우 리학교는 그 과제로 제3의학 및 한 국학의 창출·육성, 국제활동 강화 를 통한 세계화, 비교 우위분야의 중점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달성 등 을 꼽고 있다.

## 동아시아 대회 메달리스트 10명 축구부 김영선군 금메달 획득

지난 10일 개최된 '제2회 부산동 아시아 대회'에 출전한 우리학교 체 육부는 10명의 메달리스트를 배출 하며 19일 막을 내렸다.

9개국 1천8백82명의 선수들이 14개 종목에서 경쟁을 벌인 이번대 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45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51개를 차지 하며, 일본과 금메달 2개 차이로 종 합 3위에 랭크하는 아쉬움을 나타 냈다.

메달을 획득한 종목과 선수는 △ 축구부 우승=김영선(체대 체육4), 우

성문(체대 체육4) △남자농구 준우 승=김성철(체대 체육3) △체조 남 자단체 준우승=조성민(체대 체육 4), 최영신(체대 체육2) △체조 여 자단체 준우승=이현주(체과대 체 육1) △육상 8백m 준우승=이재훈 (체과대 체육3) △메드민턴 단체 준 우승=박진현(체과대 체육4), 차윤 수(체과대 체육4) △복싱 플라이급 3위=이강선(체과대 체육3)

### 여자축구대회 우승

여자축구부는 지난 17일부터 22 일까지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 린 '제2회 한국도교공사배 여자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리그전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 서 축구부는 해브론과 한양대, 인천 제철을 각각 11대0, 1대0, 2대0으 로 이기고 울산전문대와 0대0으로 비기며 3승1무의 전적을 기록했다.

또한 유영실(체과대 체육4)양은 이 대회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 았고 최우수감독상은 우리학교 박 기봉 감독이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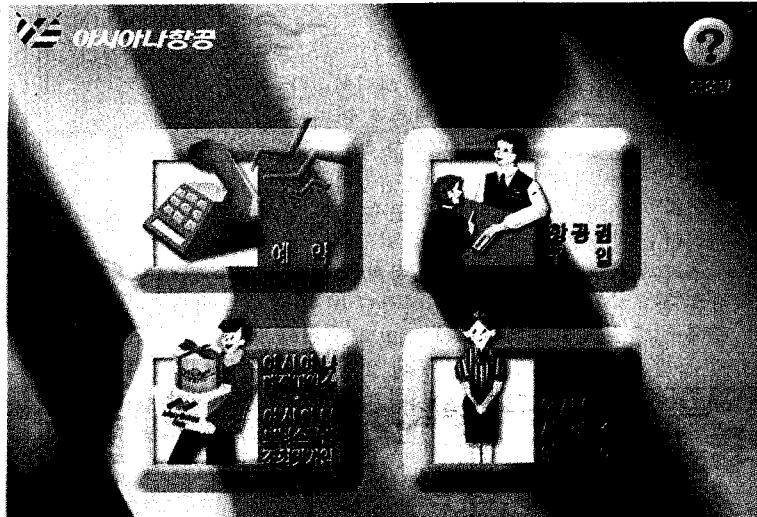
### 교시 략

## 무법지대 탈출하기

▼어떤 일에 있어서 기존의 취지는 좋았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기 획내용의 부실함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좋은 일 하고도 매맞는다' 라고 말하며 시행자에 대 한 실망감을 비아냥거림으로 표출한다.

▼우리학교는 캠퍼스내에서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를 대비, 수업개념이 인정되는 강의나 실험, 체육대회 때 당하는 상해 는 학생처의 공상처리심사과정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 정해놓고 있다. 이 제도는 교내안전사고 보상제도로 학교가 인정 하는 교내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는 부분의 치료비를 완패될 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문 제는 공상처리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 세칙이 없이 피해를 당하 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피해 당시에 대한 수업개념적용에 있어 학생처 직원이나 담당교수, 단대학장들 의 주관적인 요소가 피해보상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문제 시 된다. 또한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는 부분의 경우에만 치료비 보상이 이루어져서 특수·장기입원의 경우 학생들에게도 큰 부담 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학내 폭력에 의한 피해, 교내내 교통사고 등의 범죄나 사고들은 구체적 세칙이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교 내안전사고로 인정조차 되지않아 문제해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내 사고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내안전사고 보상제도는 분명 학생들을 캠퍼스에서뿐만이라도 보 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분명치 않은 판단기준에 보상여부를 맡기고 수업개념이 적용되는 부분의 문제만을 교내문제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충실치 못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을 아끼고 보호하려 는 학교의 진정한 마음이 올바르게 표현되려면 주관성을 배제한 객 관적이고 세부적인 세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용운 기자〉



▲국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자동발매기 초기화면.

## 국내선 항공권 자동판매기 설치

이제 학교안에서 자동발매기로 국내선 항공권을 받아볼 수 있게 되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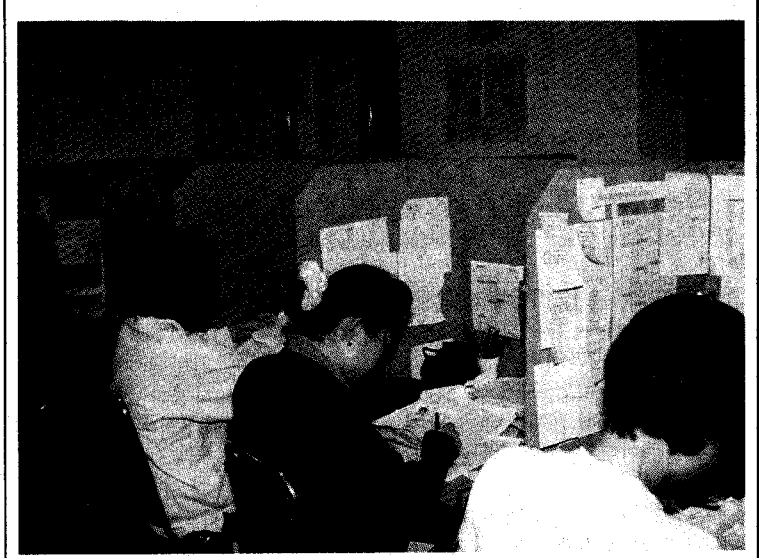
지난 16일 우리학교는 아시아나 항공과 계약, '국내선 항공권 자동 발매기(ASM)'를 이번주 중으로 서 울캠퍼스 중앙도서관 2층 매점에 설치하기로 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항공권 구매 편 의를 도모코자 설치하게 된 가로 1m, 세로 0.7m, 높이 1m89cm의 자동발매기는 항공권 예약 및 구입

의 기능 뿐 아니라 여행안내 서비스 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발매기의 사용방법은 예약시 날 짜, 구간, 성명번호를 입력한 후 예 약수령, 발권유무에 대해 선택하면 예약이 가능하고, 항공권 발권시에 는 신용카드를 삽입, 예약번호를 입 력한 후 성명·구간을 선택하면 된 다.

한편 자동발매기로 얻어지는 수 익금의 5%는 우리학교 발전기금으 로 쓰이게 된다.



**‘동문을 찾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회를 중심으로 실시한 ‘동문찾기 캠페 인’이 활기를 띠고 있다. 약 60여명의 인원이 투입된 이 작업은 학교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참여를 늘리고자 계획한 것. 사진은 지난 23일 저녁 투입 인원들이 전화를 통해 동문찾기 작업을 하는 장면〈취재부〉

## 30일 5기 한총련 출범식 원천봉쇄로 장소 변경될 듯

'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 련) 출범식'이 오는 30일부터 3일 간 한양대학에서 거행된다.

5월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실 시되는 이번 출범식에서는 부문· 계열별 한마당, 청년강좌, 출판마 당, 청년문화제 등이 선보일 예정이 며 마지막날인 6월 1일에는 서울시 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대회'가 개최 된다.

한총련 출범식 장소는 현재 한양 대로 설정하고 있으나 경찰의 강경 진압에 의해 장소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 중부지역 치대 축제

‘중부지역 치과대학축제(6.9)’

가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 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중부지역치과대학연 합(중치대련) 해당학교인 우리학교, 강릉대, 단국대, 서울대, 연세대가 참여하며 세부행사로 학술세미나, 각종 공연, 체육행사 등이 치뤄질 예정이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참된 의료인 상을 모색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기 획된 이번 행사는 1년에 1회 중치 대련 각 대학을 순회하며 실시하는 행사이다.

한편 매년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에 시행해 왔던 이 행사는 올해 기 말교사 관계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 아·태 국제대학원 특강

‘아·태국제대학원 특강’이 지난 23일 오후 3시 중앙도서관 3층 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연은 ‘한국통상 외교의 현 실과 과제’란 주제로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박상기 씨가 강연했다.

### 교수 천선 소프트볼 경기

사회대와 자연대 교수간 천선 ‘소 프트볼 경기’가 지난 22일 야구장 에서 열렸다.

박규홍 수원캠퍼스 부총장, 유도 진 사회대학장, 차영일 자연대학장, 전영중 학생처장을 비롯해 양단대 9명의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경기에서는 10대 9로 자연대 교수팀이 승리했다.

### 대학주보 뉴스서비스

천야안: GO KHU 31

하이텍: GO KHU 10

유니텍: GO KHU

인터넷:

<http://news.kyunghee.ac.kr>



## 세계 10대 유리메이커, 한국유리 -40년 외길의 결실입니다.

볼모지였던 국내 유리산업의  
용광로에 불을 지핀 이래,  
오로지 유리에만 전념해 온  
40년 외길.  
이제, 그 결실로 한국유리는  
우리나라 유리산업을 대표하며,  
세계10대 유리종합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더 좋은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HANGLAS**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한국유리가 만듭니다

편유리, 편유리, 유리섬유, 유리장섬유, 결정화유리, 건축용안전유리, 자동차안전유리, TV브라운관유리, 경질유리, 실험트